

한국 ‘조경(造景)’과 중국 ‘원림(園林)’ 석의(釋義)에 대한 연구

- 전통 정원 담장을 사례 대상으로 -

반상* · 강태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국제화시대부터 국가와 민족간의 문화차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융합되는 추세이다. 지역문화의 전승(傳承)은 각종문화, 특히 비주류(主流)문화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동방 풍경조경사업의 발전, 우수한 동방 조경문화의 전통을 어떻게 전승하고 발양하겠는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전형(轉型)하겠는가? 어떻게 다문화교류 중 시대의 비전을 찾을 것인가? 지역과 지방 특점의 형성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각 나라와 민족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조상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정신의 융합은 새로운 현대화과정을 개척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와 역사상에 아주 많은 관련이 있다. 본문은 한국의 ‘조경’과 중국의 ‘원림’을 문자로부터 출발하여 두 단어의 차이를 변별하고 분석한다. 그리하여 두 국가의 현대조경작품들의 석의(釋義)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동시에 현대도시 공공 공간과 전통에 부합되는 방법을 찾아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한국과 중국은 문화와 역사상에 많은 관계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조경기법은 약간의 동일성을 가지고 조경의 이해에는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해 상의 차이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존재한다. 또한 언어는 민족의 중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조경’과 ‘원림’ 석의(釋義) 차이를 연구하면 두 나라 사람의 가장 원시적인 생존환경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언어 또는 문자상 조경의 ‘원’(源) 또는 ‘원형’(原型)이라 한다.

국제화 물결에 더불어 한국과 중국에는 비슷한 전통 조경 문화와 기법이 있지만,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적당하게 적용을 하여야 한다. 현재 기후, 식물의 종류, 문화 전통 등 방면에서 진행되는 선행연구가 많지만 언어의(語義)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문자상의 석의(釋義) 차이를 연구하고 조경의 원형(原型)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원래의 전통 의미를 계승하고 흡수하여 새 것으로 할지에 대한 것이다.

2. 연구방법

1) 고전저서를 연구하여서 ‘조경’과 ‘원림’ 석의(釋義)를 비교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중국 언어학 역사상 최초로 자형을 분석하고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며 자전의 독음을 식별한 사전이다. 또한 이 책은 고문자, 고문헌과 고대사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

본 연구는 “설문해자(說文解字)”를 통하여 ‘조경(造景)’과 ‘원림(園林)’ 두 단어의 차이를 탐구하고 차이의 깊은 함의를 분석한다.

2) 사례 비교분석

두 나라의 전통정원 담장의 비교를 통하여 두 나라전통 조경의 내·외향형 특징을 비교분석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경’과 ‘원림’ 석의 비교

중국에서 ‘원림(園林)’이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에서 ‘조경(造景)’이라 한다. ‘조(造)’ 글자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造, 就也。從辵告聲”이라고 하며, 그리고 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景, 日光也。景, 居影切, 讀音警, 意爲‘日光’。” ‘경(景)’의 독음은 ‘경(警)’이고 의미는 햇빛이다. ‘경(景)’이라는 글자는 ‘일(日)’과 ‘경(京)’ 두글자로 구성된다. “日者實也。太陽之精不虧”, ‘일(日)’ 자를 직접 번역하면 태양이라는 뜻이다. ‘경(京)’은 “人所爲絕高丘也” 즉, 인공으로 만든 높은 언덕이다. 그러면 ‘경(京)’ 자는 큰 지형, 건축, 도시 등 높은 등급뿐만 아니라 많은 수량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경(景)’ 자의 구성은 태양아래의 큰 지형, 건축, 도시 등 많은 수량의 사물을 뜻한다. 그리고 ‘조경(造景)’을 번역하면 인공수단을 통하여 자연

환경과 원림의 각종 구성요소를 이용하고 바라는 경관을 만드는 것이다. '조경(造景)'은 외부 경관과 공간의 처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원림(園林)'이라는 단어는 서진(西晉)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단어 의미를 연구하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園, 所以爲樹果也. 從口 (wéi) 袁聲"이라고 하고, 동준(童僞)선생은 "강남원림지(江南園林志)"에서 "今將'園'字圖解之: '口'者圍牆(담장)也, '土'者形似屋宇(옥우)平面, 可代表亭榭(정사), '口'字居中爲池(지), '衣'在前似樹(수)似石(석)"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원(園)'이라는 글자는 폐쇄적인 내향적 정원공간이라는 뜻이다. "林, 平土有叢木曰林. 從二木." - "설문해자(說文解字)", "림(林)"자는 원림에 사용되는 식물 군의 구성요소와 휴식장소 또는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상태를 추구한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상 '원림(園林)'은 인공적으로 건축한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공정기술과 예술 수단을 통하여 지형을 개조하고, 수목과 화초를 심고, 건축물을 만들고, 공원안의 길을 설치한 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하게 '조경'과 '원림' 두 단어의 석의(釋義)로 보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원유(園囿)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크다. 중국은 황가원림이나 사가원림을 막론하고 정원을 만든 사람이 항상 사용자이다. 천하를 가진 황제, 부유한 귀족 또는 벼슬길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문인(文人)은 "常以剩山殘水 不足窮其底蘊, 妄欲羅十嶽爲一區, 驅五丁爲衆役, 悉致琪華瑤草、古木仙禽, 供其點綴" 본인 미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정원 안에서 산수를 조성 및 관리한다. 이런 조원자(築園者)는 보통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담장안의 경치가 외부의 세계보다 좋다고 생각하기에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를 즐긴다.

그리고 한국은 산지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형이 많이 변하고 고대 한국민족의 사상체계 중에서 중요한 지모사상, 산악 숭배사상, 물활론 및 영혼 불멸설 등의 사상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와 주택 건설시 주변자연환경을 중시하며 산을 의지하고 물이 가까이 있는 지형을 선택하고 도시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신라시대의 도성(都城), 경주의 사면은 산과 강으로 둘러 쌓여있고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으며 자연경관과 도시환경이 잘 결합되어 있다. 왕궁을 제외하고 한국전통정원의 담장은 2미터를 넘지 않으며, 시야는 외부 환경과 교류를 밀접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고대 한국 조경수(造景術)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개방적인 외향형 공간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전통 조경의 담장 비교

중국과 한국에서 담장은 정원과 외부의 경계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백성의 사합원(四合院), 귀족의 관저 나아가

표 1. 자연풍경에 대한 이용의 차이

구분	조경방법	사례사진
자연풍경	산, 하천 등을 위주로 구성함	
한국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구성함	
중국	황가원림: 자연풍경을 정원의 한 부분으로 가짐	
	사가원림: 자연풍경을 모방 및 농축함	

황제의 황궁까지 순위대로 담장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렇기에 주택의 안전성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외부세계에 대한 심리적 간격이 형형색색의 담장으로 현실화 되었다. 중국의 제일 유명한 만리장성(萬裏長城)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중국의 담장문화를 대표한다. 한국 전통 정원의 특징 중 하나는 담장높이가 낮은 것이다. 더욱이 밖에서 마당 안의 활동이 잘 보인다. 이런 경우를 중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뒤 표의 데이터에는 추측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명확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원은 건물 때문에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건물 자체가 담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면, 한국의 정원은 일단 담으로부터 외부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건물이 이차적 담장의 역할을 하여 각 영역을 구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 전통 조경의 담장 높이 비교

	한국			중국		
	명칭	시대	담장의 높이(m)	명칭	시대	담장의 높이(m)
황가궁정	임해전	674	2	대명궁(大明宮)	634	10.5
	경복궁	1394	6.44	간악(艮岳)	1117	8
	창덕궁	1405	4	고궁(故宮)	1406	12
				이화원(頤和園)	1886	7
사가정원	일두고택	1467	1.63	창랑정(滄浪亭)	1045	4.5
	이용재가옥	1490	1.65	졸정원(拙政園)	1509	6~8
	독락당	1516	2.1	기창원(寄暢園)	1527	5
	소쇄원	1530	2	예원(豫園)	1559	4.5
	동춘선생고택	16세기 중	1.8	유원(留園)	1593	4.7
	윤고산고택	17세기 초	2.2	사자림(獅子林)	1747	6
	윤증고택	18세기 소	2.2	망사원(網師園)	1770	4.7
	운조루	1776	1.72	이원(怡園)	1874	5
고도산성	김동수가옥	1784	2.2			-
	경주월성	101	5.45	카이펑성(開封城)	781	8
	공산성	475	6	원대도성(元大都城)	1264	7.5
	상당산성	1716	4~5	남경성(南京城)	1366	14~21
	수원화성	1794	4.9~6.2	서안성(西安城)	137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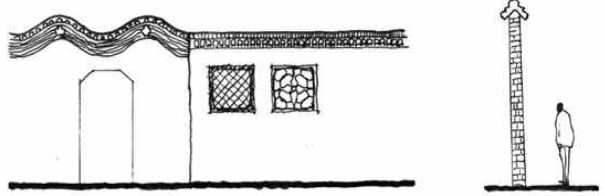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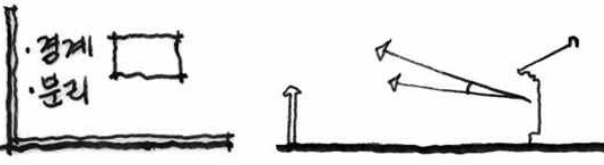

한국은 자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은 문화경관의 잔여 부가 아닌 문화경관 구성 속에 그 자체로 참여한다. 대지경계, 내·외 공간분리, 동선유도, 시선차폐, 차경 등 담장의 기본 기능인 경계나 방어, 공간분리 이외에 밖의 경관을 끌어 들이는 차경효과도 있었다.

담은 내부적으로 생활 공간상 단독적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서 경계로서의 담보다 형식과 형태가 다소간에 느슨하여 높이도 낮고 완전히 폐쇄 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았다. 내부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틈을 만들었기에 흥미롭다. 그래서 한국의 담장은 시야와 외부 환경의 교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원과 외부공간의 경계만 설치하는 것이다.

중국 유가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인조원가(文人造園家)들이 원림의 창조에 참여하였고 유가사상 표현의 일부분인 시의 정서와 그림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중국의 담장은 정원과 외부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였고 정원은 폐쇄한 내향형 공간되기 때문

표 3. 전통조경 공간의 담장 구성 비교(자료: 김선희, 2007)

한국	중국
	
담장 높이가 사람의 키와 비슷함	담장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높기에 담장에 여러 유형의 창문을 설치함
	
외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경관을 끌어 들이는 차경효과가 있었음	외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담장 본체를 경관대상으로 이용함

에 외침방어 등 기본 기능 이외에 경관대상, 동선유도, 경관배경 및 부속적인 시설로 경관효과가 한국의 경우보다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은 내형적 미를 중시하고 외부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한국은 외형적 미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설문해자(說文解字)”를 통해서 ‘조경(造景)’과 ‘원림(園林)’ 본질적 석의(釋義)의 차이를 탐구하고 설명한다. 또한 두 나라의 전통 조경 사례를 통하여 한국조경과 중국원림의 구성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여 ‘조경(造景)’을 번역하면 인공수단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원림의 각종 구성요소를 이용하고 바라는 경관을 만드는 것이다. ‘원림(園林)’은 인공적으로 건축한 상대적 폐쇄적인 환경을 공정기술과 예술 수단을 이용하여 지형을 개조하고, 수목과 화초를 심고, 건축물을 만들고, 공원 안의 길을 설치한 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조경(造景)’과 ‘원림(園林)’의 석의(釋義)를 근거로 두 나라의 조경기법은 약간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경 구성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조경’은 외향 경관과 공간을 경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림’은 내향형 공간을 중시한다. 이 차이는 두 나라 사회 상류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결정된다.

셋째, 두 나라 전통 정원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 정원의 담장 높이가 동시대 중국의 보편적인 전통 정원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원은 담장으로 외부와 경계를 완전히 하고 내외 교류한 시야를 막지 않는다. 중국에서 담장은

정원과 외부공간과 명확한 경계이기 때문에 미관적인 경관효과가 한국의 경우보다 더욱 필요하다.

넷째, 한국은 자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은 문화경관 구성 속에 그 자체로 참여고 배경으로 정원의 구성을 된다. 중국의 조원가(造園家)는 유가문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정원을 폐쇄한 내향형 공간으로 만들고 좋은 것을 모두 망라한 후에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를 즐긴다.

‘조경’과 ‘원림’은 사실 언어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중국은 내형적미를 중시하고 외부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한국은 외형적 미를 추구하는 경상을 있다.

현재 국제화시대에서 세계는 여러 가지 문화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설계자는 더욱 자세하게 사고하고, 기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근본 상으로부터 전통을 보존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통사례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현대작품 중 조경 언어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許慎, 徐鉉(2009) 說文解字(附檢字). 中華書局.
2. 俞炳林, 黃琪源, 朴鐘和(1989) 朝鮮朝 庭院의 原型.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3. 김선희(2007) 한-중 전통정원 공간에서의 담장 특성 비교.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崔在文(1999) 韓國 傳統上流住宅의 담장 特性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姜泰昊(2002) 中韓歷史文化名城空間結構的演進及歷史景觀保護的比較研究. 清華大學 박사학위논문.
6. 曾洪立(2008) 風景園林規劃設計的精髓. 北京林業大學 박사학위논문.